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화순군, 폭염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총력

건강수칙 교육 · 온열질환 예방 및 피해최소화



화순군은 연일 무더위속에 전국적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이환 및 건강의화를 예방하고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과 폭염피해에 취약한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및 무더위 쉼터 등을 방문하여 집중적인 건강관리서비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독거 및 거동불편 어르신 등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전담인력,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담당자 등 34명을 폭염도우미로 파견해 1대1 안부확인, 혈압 및 혈당 등 기초검사 후 건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우울증 검사, 다리공기자압 및 물리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에는 ▲위험시간대(12~17시) 외출 자제 ▲갈증을 느끼기 전 규칙적 수분 섭취 ▲음주 및 카페인, 염분 다량 함유음료 섭취 자제 ▲활동이 불가피할 시 챠이 넓은 모자나 양산 가볍고 밝은 헬링한 옷 등을 착용 ▲인근 무더위 쉼터(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교육과 함께 재기압환자·거동불편자에게 기저귀, 영양제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정보 및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에 대한 증상, 대처 방법을 강조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정순 보건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이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공보육 확충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접수

내달 9일까지 시 교육청소년과서 접수 받아

광양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26일부터 8월 9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접수받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2018.7.19.)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접수가 90점 이상(통합지표는 A등급)이고,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12개월간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촌 지역은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면, 2018년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관련서류를 지침에 시 교육청소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1차로 광양시에서 확인을 거쳐 전라남도 선정심사단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4일 전남도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3년 간 보육교사는 국공립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등 보육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박양군 교육청소년과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면 되며, 문의는 전화(☎797-3343)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에는 공공형어린이집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

광양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흐자노릇 톡톡

총 28여 톤 공급…작물 생육 발달 촉진과 품질 향상 도움돼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배양해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황생제 사용감소와 토양환경개선, 축사환경개선, 농작물 생육촉진을 목적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총 3종의 유용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시설원예·축산 과수 등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률 역시 매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774농가에 전년대비 15%정도가 증가한 총 28여 톤을 공급의 미생물을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400여 농가에 50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일 식량작물팀장은 “최근 환경보전과 안전농사를 생산이 높은 관심을 얻으면서 미생물을 활용 또한 기대가 높아져 농업현장에서 사용량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미생물을 활용방법에 대한 농가 교육과 기술보급에 적극 나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나 기술보급과 미생물제작실(☎061-797-3660)로 연락해 방문하면 개인당 연간 200L까지 무상(초과 시 유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폭염대비 관내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점검

5개 건설현장 불시 점검

순천시는 연이은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현장 5개소에 대해 불시에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장형수 도시건설국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행동 매뉴얼이나, 근로자를 위한 쉼터와 시원한 음용수(식염수)제공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 및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기관과의 환자후송에 따른 업무협약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아외작업자를 위한 그늘막 쉼터 설치, 제방기와 설치등 폭염에 대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쉼터의 추가설치, 개인용 이어스프레스 제공등 보완사항이 있는 현장은 보완하도록 절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이와 함께 식염수등 음용수의 위생적관리와 작업 중 흡연, 안전도 대신 헛빛기름용 일반 모자를 쓰고 있는 등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관계자들과 매일 현장 안전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시설 설치여부와 환자발생 이상유무에 대해 관심있게 살피고 있다”며 “순천시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환자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절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사적) 지정 건의, 동천하구 흑두루미 서식지 조성사업 157억원 등도 확보 될 수 있도록 검토했다.

허석 시장은 “제정지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국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논리 개발로 해당 부처를 설득하는 등 국고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석 시장은 취임 후 지난 11일 대전과 세종 정부청사 방문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방문하는 등 무더위 속 국고 확보를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